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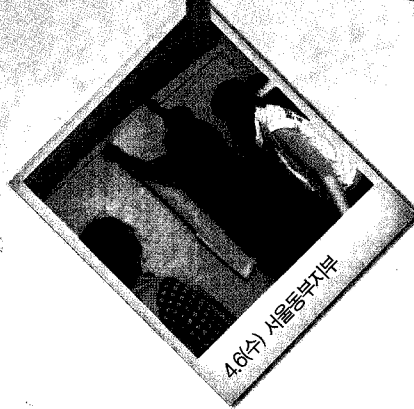
웃음 꽃피우는 법 >>> 사랑의 끈, 협회 한 반퀴
 1월 20일 사진 한국건강관리협회 제공



4.4(월) 본부



4.5(화) 서울서부지부



4.6(수) 서울동부지부



4.7(목) 인천지부



4.14(목) 전북지부



4.15(금) 광주·전남지부



4.18(월) 제주지부



4.19(화) 대구지부

‘사랑의 끈’ 전국 릴레이 자원봉사 서울에서 제주까지 봉사의 손길 듬뿍 담아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랑의 끈’ 전국 릴레이 자원봉사가 지난 4월 4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에서 건협사랑 어머니 봉사단과 강서지역 지역아동원생 80여 명이 참석한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 릴레이 자원봉사의 첫 출발을 알렸다.

4월 한 달간 전국 15개 시도 지부에서 펼쳐진 봉사활동 ‘사랑의 끈’ 전국 릴레이 자원봉사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실시된 것으로 본부를 비롯해 전국 15개 시·도지부의 직원과 건협사랑 어머니 봉사단이 릴레이 형식으로 자원봉사를

전개한 것이다. 4월 보건의 달에 서울에서 제주까지 진행되었으며, 11월 협회 창립기념일에 맞춰 전개될 예정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4월 4일 본부의 ‘지역아동센터원생 한강사랑 나눔 체험’을 시작으로 4월 25일 부산지부의 ‘온천천 시민공원 환경정화 봉사’로 ‘사랑의 끈’ 전국 릴레이 자원봉사를 마쳤다.



4.8(금) 경기지부

4.11(월) 강원지부

4.12(화) 충북지부

4.13(수) 대전·충남지부

4.20(수) 경북지부

4.21(목) 울산지부

4.22(금) 경남지부

4.25(월) 부산지부

이어 '함께하는 기쁨, 나뉘지는 녹색건강' 이란 슬로건으로 서울에서 제주까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끈' 자원봉사 기간 동안 어려운 이웃에게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한강에서 유람선도 타고 기생충 전시관도 구경하고
 지난 4월 4일 '사랑의 끈' 전국 릴레이 자원봉사의 시작이 된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 발대식은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강서구 지역아동센터원생들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고, 오래간만에 어린 손님을 맞이한 건협사랑 어머니 봉사단 역시 설렘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리 협회의 '사랑의 끈' 전국 릴레이 자원봉사가 사회의 사랑나눔 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는 조한익 회장의 인사로 시작한 발

대식이 끝나고 강서구 지역아동센터원생과 건협사랑 어머니 봉사단은 서울서부지부에 있는 기생충 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겨 기생충 전시관을 견학했다.

김예진(화곡초등학교 · 5학년) 학생은 "오늘 손, 발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기생충이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유람선은 처음 타보는 것인데 너무 기대됩니다."라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아이들의 인솔자로 참석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전은경 교사는 "유람선을 탄다는 말에 아이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해 '사랑의 끈' 전국 릴레이 자원봉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MEDI_{CHECK}**